

우리의 강은 어디로 갔을까

내성천 지킴이 지을 스님 다큐 영화 제작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우리가 걸었던 아름다운 강이 어디 갔나요?’ 하고 그 허망한 질문이 내가 가진 희망의 전부였다”



지을 스님의 다큐영화 '모래가 흐르는 강'

내성천 지킴이 지을 스님의 4대강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모래가 흐르는 강'이 3월 28일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신사동 인디플러스 등에서 개봉한다. 영화 '모래가 흐르는 강'은 지을 스님이 2008년 4대강 착공식 뉴스를 보고 산에서 내려와 물길을 따라 걸으며 내성천의 변화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다.

지을 스님은 “여만년 이어져 내려온 자연의 물길이 위협에 처해있고 그 재앙에

자연스럽게 생명과 자연, 환경에 관한 성찰의 길로 인도한다.

이에 조계종은 3월 14일 오후 3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에술공연장에서 시사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지을 스님과 이웃종교인, 서울의 주요사찰 주지스님들과 신도대표, 환경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감독인 지을 스님 인사 후 75분간 영화를 관람한다.

영화를 후원하는 조계종 사회부는 “3월 28일 극장 개봉 후 반응이 좋으면 장기 상영이 결정된다.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번 영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을 스님은 시사회와 함께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갤러리 나무에서는 내성천의 모습을 담은 '내성천 양배를 군락과 조각 사진전'을 3월 31일까지 연다. 스님은 내성천 강가에 자리잡은 야생 버드나무 군락과 갈대 채취로 무너져가는 내성천의 모습 등 총 40컷을 선보인다.

정혜숙 기자 bwhjs@hyunbul.com

조계종 3월 14일 영화 시사회

3월 28일 극장 개봉

대한 경교가 하루도 빠짐없이 논의되고 있지만 자신이 태어난 국토가 겪는 아픔의 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너무나 드물다. 단풍놀이를 즐기는 100명 중 한 명이 불꽃놀이를 즐기는 1000명 중 한 명이라도 강으로 발걸음을 돌린다면 정부가 어떻게 무모하게 국토를 파헤치는 사업을 감히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라며 영화를 만든 기획의도를 말한다.

영화는 강에서 그려지는 아름다움은 4대강 사업과 영주담 공사로 파괴되어가는 모습과 대비를 이루며 '강은 우리에게 무엇일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또한 자연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성덕대왕신종 영어로 해설해줘요

경주박물관 토요뮤지엄 투어 운영

국립경주박물관은 3월 9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시품 영어 해설 프로그램인 '토요 뮤지엄 투어(Saturday Museum Tour)'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가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각 전시실을 순회하며 성덕대왕 신종 불상 등 전시품에 대한 영어 해설은 물론, 참여자가 질의응답을 하며 우리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경주박물관의 토요뮤지엄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경주 박물관은 “지난해 '토요 뮤지엄 투어'에 참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신라 및 한국의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문화재를 알게 되어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특히 금관, 성덕대왕신종, 불상 등이 인상 깊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054)740-7536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삼세불(三世佛) → '아미타-석가-약사 三佛' ㉘

영원한 시간 속 과거 현재 미래는 '분별'



상주 영흥사 괘불탱(1684년) 중요부문. 석가-아미타-약사 삼불.

삼존불(三世佛)이라는 용어는 석가삼존, 아미타 삼존 등이라 하여 좌우에 협시 보살이 함께 있을 때 이르는 용어이고, 석가여래를 중앙에 봉안하고 좌우에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를 두어 세 분을 함께 봉안하였을 때 이르는 용어는 아직 없다. 그렇다고 삼불(三佛)이라 부르기가 어색하다. (아미타-석가-약사 三佛)라 임시로 만들어 본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조각이나 불화에 자주 나타나는 세 부처님 형식, 학계나 일반인들 사이에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불(三世佛)'이라 널리 쓰이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불상들의 명칭으로 삼고 있다.

석가여래 현신에 시간성 부여 '독특'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삼세불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절이나 가만 대부분 주련(柱聯)에, “佛身普徧十方中” “三世如來一切同”이란 말을 새기거나, 짚개는 다음과 같이 “十方三世諸佛一切同”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불신이 무한한 공간에 가득 찬 가운데 시간적으로 영원한 여래들은 모두 같다는 말이다. 시방은 동서남북을 다시 사이마다 방향을 하나씩 더 하여 팔방(八方)으로 하고 상하(上下)를 합하여 우주로 상징한다. 그러므로 무한한 우주 공간

과 영원한 시간을, 동서남북과 과거-현재-미래로 부르는 것은 분별심에서 나온 말이다. 즉 관념적이어서 불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 무량한 여래들은 결국 석가모니의 불신, 즉 현신이므로 삼신불 가운데 비록 법신이 가장 위상이 높아서 항상 중심에 존재하나 법신도 결국 석가모니여래가 설한 진리이므로, 가장 중요한 근본적 여래는 석가모니여래라 할 수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 여래가 된 유일한 존재이다. 응신이며 동시에 법신인 석가여래를 중심에 두고 보신들이 동서 정도의 여래인 약사와 아미타를 좌우에 둬으로써 '佛身普徧十方中 三世如來一切同'이란 불신관을 압축하여 나타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도상이 탄생한 것이다. 시방불(十方佛)이란 용어가 없는 것처럼, 삼세불(三世佛)이란 용어도 없다.

우리는 우선 삼신불(三身佛)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작금의 삼세불의 해석이 얼마나 그릇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삼신불을 완벽히 파악하려면 그다지 쉽지 않다. 법신-응신-보신이라는 삼신불에서, 법신(法身)은 형상이 없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다. 비로자나는 삼전대전세계에 종만한 '생명의 빛'이다. '진리의

빛'이다. 그러나 비로자나의 화신이 삼라만상이어서, 삼라만상이 비로자나 아닌 것이 없다는 절대적 진리에 이른다. 나의 조형적 이론에 따르면 영기화생 아닌 것이 없다는 말과 같다.

시간과 공간 개념 바른 이해 필요

법신이 인간의 몸으로 화신한 응신(應身)의 대표적 존재가 석가모니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상정등각을 성취한 유일한 여래이다. 그는 열반에 들어 과거의 존재로 되어 버렸지만 그 여래가 살한 법이 바로 경전이고 법신이다. 그러므로 법신과 응신은 떼어 수 없는 하나이며 영원한 현재성을 띤다. 더구나 대승사상이 흥기하면서 석가여래는 영원한 현재불인 근본불이 된다. 보신(報身)이란 보살로 있었을 때 서원을 세워 실천한 결과로, 즉 그 과보로 여래가 된 분이 바로 보신불들이다. 즉 약사여래, 아미타여래 등이다. 현재 삼전대전세계마다 그 정도를 주재하는 여래가 있으니 그 수가 무량하다.

방향에 따라 동방 유리광세계에는 약사불이 계시고, 서방 극락정토에는 아미타여래가 계시고, 남쪽과 북쪽은 정해져 있지 않아 여러 설이 있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므로 세계는 동과 서로 축약되어 동서(東西)가 세계를 상징을 한다. 지구의 세계가 동양과 서양으로 양분되듯이, 그래서 석가여래 양쪽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가 함께 있어서 우주에 충만한 여래를 상징하는 것이다. 보신이란 원래 현재불이다. 현재 동방정토에 약사여래가 계시고, 서방정토에는 아미타여래가 계시다. 현재 사바세계에는 석가여래가 계시다. 약사여래는 과거불이 결코 아니다. 아미타여래는 미래불이 아니다. 미래불은 미륵불 한 분 밖에 계시지 않는다. 불경을 읽으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것이다.

논문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삼세불이란 말을 쓰고 있어서 그 진원지를 알아보니 문명대(文明大)씨였다. '불교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아무 증거 없이 작의적으로 약사여래를 과거불로, 아미타여래를 미래불로 만들어 삼세불로 만드는 것은 너무도 큰 오류이다.' 종교계에서 연구하여 올바른 용어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로 남긴다.



강우방 (일할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즐거운 병영생활 마음 수련 지침서!

2년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현명할까?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여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 임영통지서를 받고 불안하고 초조한 청춘
- 군 생활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는 장병
- 군 생활 2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장병
- 장병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싶은 가족, 친구, 연인

고명석 글 | 176쪽 | 9,000원 | 사륙판(125×187mm)

세상 끝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의 끝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스님의 편지.

기막히게 아름다운 아침의 꽃이라도 해가 지면 시드나니, 멀리 사람들이여, 당신의 육신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지 마라.

The Hundred Verses of Advice

파란색 상계 · 덮고 전체 린포체 저음, 고수연 옮김 | 256쪽 | 13,000원 | 사륙판